

26

ARTNOW's Pick

How Beautiful and Bright These Are!

장-미셸 오토니엘 Jean-Michel Othoniel



Courtesy of Kukje Gallery, Photo by Othoniel Studio



Courtesy of Perrotin Store Paris

아름다운 색깔의 유리구슬과 벽돌로 작업하는 프랑스 현대미술 작가 장-미셸 오토니엘. 그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유리를 활용한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. 신화에 기반한 현실, 환상, 미래와 꿈 이야기를 비롯해 아름다움의 이면에 감추고 있는 악함과 상처 등 다양한 주제를 유리 매체로 표현해냈다. 그의 작품을 특별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작품이 조명과 작품의 위치, 관람자의 시선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채롭게 변주한다는 데 있다.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소유하고 싶은 건 비단 당신만의 바람은 아니다. 장-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은 그만의 미학을 지닌 '뮤지엄 피스'이면서도 동시에 영롱한 빛깔의 장식적 효과까지 담은 작품이다. 오는 3월 10일부터 국제갤러리 한옥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을 기대해도 좋다.

1
Wonder Block, 2022
2
JMO Lampe Perle

에디터, 백아영 | 글, 정승(조리원사) | 사진 제공, 국제갤러리 · 페로틴 파리